전북 선수들, 전국 규모 대회서 맹위 떨쳐

채린은 3위를 거머줬다. 또 복식 경기에 나선 고

강원도 인제에서 열린 제73회 전국씨름선수권대

혜주와 황현정도 값진 3위를 기록했다.

모래판에서의 활약도 눈부셨다.

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

태권도 · 배드민턴 · 씨름 등에서 좋은 성적 거둬… 춘천코리아오픈 대회서 전주시청 태권도선수단 이채호(58kg급) 선수 · 이선기(87kg급) 선수 금메달 등

전북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 두면서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 체육대회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12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국제 또는 전국 규모 대회에 출전한 전북 선수들이 맹 위를 떨치고 있다.

먼저 전주시청 태권도선수단은 최근 막을 내린 '춘천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에서 금빛 발차 기에 성공했다.

이채호(58kg급)는 결승전에서 만난 필리핀 선수 를 16대13으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고, 이선기 (87kg급)도 국군체육부대 선수와 연장전까지 가 는 접전 끝에 승리해 1위를 차지했다.

또 박병규(68kg급)는 아쉽지만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북의 셔틀콕 전사들도 전국을 호령했다.

전남 화순에서 열린 '이용대올림픽제패기넘 전 국 학교 및 실업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에서 원광대와 군산대 배드민턴부가 단체전 동반 우승 을 차지했다. 먼저 남자부 원광대는 단체전 결승 전에서 한립대를 만나 세트스코어 3대0으로 누르 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는 학교 대항에서 5 년만에 우승한 것이다.

군산대 여자부도 이 대회 단체전 결승전에서 부 산외대를 만나 접전 끝에 3대2로 승리, 정상에 오 르면서 14년만에 우승이라는 쾌거를 올렸다.

단체전 뿐만 아니라 개인전에서도 승전보가 잇 따랐다. 원광대 서승재와 임수민이 호흡을 맞춘 복식 경기에서도 우승을 차지했고 문준섭은 개인 전 단식에서 3위에 올랐다.

일반부 경장급(75kg)의 손희찬과 장사급(140kg 이하)의 김병찬 선수는 모래판 최정상에 올랐고 오준영과 황성희, 김기환은 값진 은메달을 추가 했다. 이 대회에 함께 출전한 호원대와 전주대 군산대 배경은은 개인전 단식 1위에 올랐고 정 씨름부도 각각 동메달 4개와 1개를 획득했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전북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서 제 기량을 선보이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며 "부상없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 체육회에서도 각종 지원을 아끼지 회에 출전한 정읍시청 씨름부는 금메달 2개와 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청 태권도선수단은 '춘천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에서 금빛 발차기에 성공했다.

진안군 마령 원강정마을, 전통문화 축제 성료

진안군 마령면 원강정마을(이장 송창윤)은 지난 12일 전통문화 축제가 열렸다. 이번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전통문화 축제에 원강정마을 주민들을 비 롯한 전주 동로타리클럽회원과 인근마을 주민까지 100여 명이 참석하며 축제의

이날 축제는 강정리 마을을 상징하는 용깃발에 마을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과 주민화합을 위한 마을잔치 등이 이어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www.j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전주매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발행 · 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고창지사 563-6999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64 010-2333-4791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 서신지사 272-9417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58-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농협 무주군지부, 복지관 삼계탕 급식봉사

지난 12일 초복을 맞아 농협 무주군지부(지부장 송혁) 직원들은 무주종합복 지관을 찾아 생닭 450수, 수박 10통을 전달하고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 및 장 애인들에게 삼계탕 점심 급식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급식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 곽동열 무주농협 조합장, 양승욱 구천 동농협 조합장 등이 동참하여 도왔으며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건강을 기원했

송혁 지부장은 "초복을 맞아 어르신들이 삼계탕을 맛있게 드시고 여름을 건 강하게 나시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대 권정율 선수, 아시아주니어 레슬링선수권대회서 은메달

전주대학교 레슬링부(감 독 박진규)는 8일부터 태 국 촌부리에서 진행된 아 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권정율 선수(20. 운동처방 학과)가 은메달을 획득했 다고 밝혔다.



그레고로만형 97kg에 출 전한 권정율 선수는 준결

승전에서 키르기스스탄 셰리베코브 선수를 상대로 7:6 역전승을 거둬 극적으로 결승에 진출했다. 하지만 결승전에서 만난 이란의 애버벨리 선 수와 접전 끝에 4:2로 석패하여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권정률 선수는 지난 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금 메달을 획득하여 레슬링 관계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국가대표 선 발전에서도 상대 선수를 테크니컬폴승 등 압도적으로 제압하며 뛰어난 기량을 보여왔기에 이번 대회에서 더 큰 아쉬움을 남겼다.

권정률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오는 8월, 또 다시 세계무대에 오른다.

한편,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에스토니아 탈린 지역에서 열리는 2019 세계주니어레슬링 선수권대회에는 전주대 운동처방학과 3인방, 그레고 로만형 87kg 강현수 선수(20), 97kg 권정율 선수(20) 그리고 130kg 김민 준 선수(19)가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메달 획득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 로컬 JOB센터 취업전문 프로그램 운영

무주군 로컬JOB센터 (센터장 김선태)에서는 (사)한국평생교육HRD 진흥협회와 함께 취업 전문 프로그램인 문해 교육 강사 양성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했



이 과정을 이수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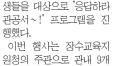
되면 한글지도사 자격이 주어지며 이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자 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들은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 과 열의가 있어 앞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 문해교육 강사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강사 양성과정 이수 대상자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무주군 로컬 JOB센터와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 /무주=전문선 기자 도 함께 고민하고 추진하게 된다.

장수 지역 기관이 함께하는 '열려라 관공서 진로체험' 운영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정동일)에서는 최근 장수 관내 7개 중학교 49명의 학 생들을 대상으로 '응답하라 관공서~!'프로그램을 진 행했다.





공공기관(장수교육지원청, 장수군청, 장수경찰서, 장수보건의료원, 무진장소방서, 장수한우지방공 사, 농협은행장수지점, 장수군산림조합, 한국농업연수원)이 참여하였으 며, 학생들을 위한 진로배움터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며 그 답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진로교육 터전을 만들기 위해 모든 기관과 단체의 협력을 확대하여 양질의 진로직업체험이 이루 어지도록 더욱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